

동순이·줄리엣·푸바오 그리고 새로운 동순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동순이’와 찍은 사진을 찾지 못했다. 대신 동순이와 닮은 블랙탄 사진을 찾았다. 사진 속 블랙탄처럼 동순이도 털은 검지만 눈이 순수하고 맑았다. 사진 속 블랙탄은 2013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블랙탄이다. 블랙탄은 당시 경포동 한 리조트의 회전교차로 펜스에 묶여 있다가 산불 때 도망치지 못했다. 이후 경찰관들이 발견해 구조했다.(강릉경찰서 제공)

1. 동순이

“동순이는 오늘 어디 나갔어요? 요즘 올 때마다 통 안 보이네”

내 고향 경남 거제시 아양동에 가면 ‘옥련사’라는 절이 있다. 내 부모님을 모셔 놓은 그리고 제사를 살피주는 절. 어느 명절 때처럼 2023년 9월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동순이는 이 절에서 기르던 ‘블랙탄’이다. 진돗개 중에서 새까만 털을 가진 진돗개. 우린 진돗개라 하면 하얀색 개를 먼저 떠올린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돌아온 진돗개 백구’ 책

이 준 인상이 너무도 강렬해서일 것이다. 송재찬 씨가 쓰고 1997년 발간된 이 책은 1993년 진도에서 살다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 백구가 300km를 달려 주인 품으로 돌아온 감동실화를 다뤘다. 백구의 털은 이름 그대로 이었다. 그래서 일까. 내 눈길은 늘 동순이에게 머물렀다. 검은색 털을 지닌 진돗개에 대해선 주변에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흔히 볼 수 있는 견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절을 올 때마다 녀석은 누워있거나 엎드려 자기 일쑤였다. 그놈도 피곤해서 그런 것이리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를 향해 짓는 일도 차츰 잦아들었다. 내가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동순이도 늙어가고 있다는 진실을 알았다. 당시 동순이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14살이었다. 블랙탄의 평균수명은 15년이다. 개도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근육량이 줄고 털이 빠진다. 당연히 기운도 없다.

그날따라 동순이가 더 생각이 났다. 때마침 2023년 5월 사회부 재직 중 신문에 식용견 논쟁을 취재해서 쓴 기획기사 ‘보신탕 별곡’을 쓰고 넉 달 후여서 더욱 그랬다. 내가 동순이를 찾자 절의 주지스님과 결혼해 함께 사시는 보살님이 산속 어딘가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전에 죽었어” 동순이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내 머리를 때린 건 그다음 이야기였다. 동순이는 지난해 초부터 절 뒤편에 있는 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동순이를 몰래 따라 나서 본 보살님은 그곳에서 동순이가 누워서 깽깽거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진돗개들은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아파하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숨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했다. 동순이도 마찬가지였다.

동순이가 하늘나라로 간 날도 다르지 않았다. 동순이는 집을 나간 후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보살님은 동순이를 찾으러 나섰다.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사체를 발견했다. 절 인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모아 버리는 곳의 큰 봉투 안에 동순이가 우겨 들어가 있었다. 산속 혹은 인근 어딘가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 같다고 보살님은 말했다. 개가 거리에 죽어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으로 추측됐다.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동순이의 생각과 마음은 쉽게 가늠할 순 없다. 다만 주인에게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싶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기를 각오했던 것이라면, 그 마음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확 와닿았다. 그 마음은 ‘가족애(愛)’였을 것이다. 동순이가 정말 보살님과 주지스님께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다. 난 이번 정부 들어 조금씩 변진 식용견 논쟁에 무감각했다. 찬반이 갈려 쏟아지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 취재도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한번 쯤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해 접근했다. 식용견 논쟁 관련 기사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자는 용감무쌍한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동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는 달라졌다. 동물과 가족의 감정을 공유한 순간,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 지론이나 인식도 조금씩 바뀌었다. 식용견 문제는 언젠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하는 난제임에 틀림없다.

II. 줄리엣

동순이 이야기만큼은 아니지만, 취재



2023년 5월29일 경북궁내 메트로미술관에서 연 프랑스 유명 사진작가 소피 가먼드의 사진전에 전시돼 있는 줄리엣의 사진과 설명. 줄리엣은 식용견 사육장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가먼드는 식용견으로 키워지다 구조된 개들을 예쁘게 장식해 사진을 찍고, 이 사진들을 전시, 개들도 아름답게 가꾸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중에도 가슴을 요동치게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유명배우 다니엘 헤니와 그의 애완견 ‘줄리엣’이다.

다니엘 헤니는 평소 개를 좋아했던 것 같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택에서 애완견 ‘로스스코’와 살고 있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캠페인을 지지하거나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다 2020년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의 인스타그램에서 줄리엣을 보고 심장이 뛰었다고 한다. 줄리엣은 충청남도 홍성의 한 식용견 사육장에서 구조된 리트리버였다. 빨리 가서 줄리엣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다니엘 헤니는 당시를 회상한다. 곧바로 다니엘 헤니는 HSI에 연락해 줄리엣을 입양했다. 그

추진력은 인연, 운명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당시에는 따로 이름이 없었고 후에 ‘줄리엣’이란 이름을 다니엘 헤니가 지어줬다. 아마도 자신을 로미오에 빗대고 줄리엣과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이뤄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었으리라 생각된다. 줄리엣에 대한 다니엘 헤니의 사랑은 그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도 잘 보여진다. 지금도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면 줄리엣과 처음 만난 순간을 찍은 동영상이 제일 위에 게재돼 있다. 다니엘 헤니는 이 영상에서 “줄리엣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밝혔다. 애정과 관심은 로미오와 줄리엣, 그 이야기와도 닮아 있다. 다니엘 헤니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2023년 5월29일 경북궁 내 메트로미술관에서 연 프랑스 사진작가 소피 가먼드의 사진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 가먼드는 “다니엘 헤니는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줄리엣 자랑을 그렇게 한다”며 웃었다.

III. 푸바오

요즘은 안방에서 TV로도 동물을 많이 마주한다. 개에 관해선 국내 한 방송사에서 방영됐던 ‘캐나다 체크인’을 인상 깊게 봤다. 가수 이효리 씨가 구조해줘 인연을 맺은 바 있는 유기견들이 입양돼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만나고 추억을 되새긴다. 프로그램의 압권은 이 씨의 표정과

행동이다. 이 씨는 캐나다로 유기견들을 만나러 가기 전 집, 숙소에서 짐을 쌀 때부터 감정이 고조돼 있다. 만날 친구와의 추억을 되새겨보고 관련 물건들도 찾아본다. 또 짐가방에 그 물건들을 챙겨서 가져간다. 그 친구와 추억을 나누기 위해서. 옷고 울다가 도착해선 유기견을 반갑게 부르고 입양해준 캐나다인 가족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남긴다. 유기견들은 이 씨를 보고 하늘을 날 듯이 기뻐했다. 유기견들을 사람으로 바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란 느낌을 받았다. 유기견들이 자신을 구해준 이 씨를 기억하는 것도 신기한데 뜨겁게 반가워하며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과 개의 유대가 어디,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를 생각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기기도 했다.

삼성 에버랜드의 강철원 사육사와 중국에서 온 판다 ‘푸바오’는 또 어떤가. 유대에 있어 이들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난 사실 처음엔 사람들이 강 사육사와 푸바오를 보며 어떤 점에서 위로받는지 알기 어려웠다. 단순히 푸바오가 하는 행동과 외모에서 오는 귀여운 느낌만이 그 원인일 것 같진 않았다. 그러다 “아해!” 하도록 만드는 장면이 하나 나왔다. 강 사육사가 판다의 먹이인 대나무를 정리해주자 옆에 있던 푸바오가 강 사육사의 어깨를 감싸고 토닥였다. 고맙다는 표시인 동시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위로의 인사와도 같아 보였다.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모



삼성 에버랜드에서 동고동락한 강철원 사육사와 판다 ‘푸바오’는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24년 2월에는 강 사육사와 푸바오의 생활을 찍어 올린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이 테마파크 업계 최초로 누적 조회수 5억뷰를 돌파했다. 사진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를 끈 ‘판다 할배와 푸바오 팔짱 데이트’ 이미지(삼성 에버랜드 유튜브 캡처)

습. 푸바오를 가족 또는 친구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심쿵’의 순간이다.

2024년 5월19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를 모토로 아이들에게 동식물을 체험하고 연구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 에버랜드를 취재했다. 에버랜드는 참가한 아이들에게 자체 관리하는 동식물들을 연구하고 살필 기회를 제공해서 특징을 익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육사들은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 친구들이 가진 가지각색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했다. 두 마리의 호랑이 친구들을 실제로 보는 시간에는 담당 사육사가 호랑이들에게 수시로 시그널을 줬다. 호랑이들은 그 시그널에 맞춰 밥을 먹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그



2024년 5월19일 삼성 에버랜드의 ‘동식물 체험학습’을 취재할 때 본 호랑이 사육사와 호랑이 두 마리. 사육사는 호랑이들의 별칭을 부르며 애정이 담긴 주문을 하고, 호랑이는 이에 맞춰 움직였다.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가족을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과정이라 생각된다. 역시 그들과 우리가 ‘가족’이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IV. 새로운 동순이

가족이 된다는 건, 어느 동물과도 다 가능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식용견 논쟁에서 늘 따르는 질문이 있다. “왜 ‘개’인가?”이다. 우리 사람들은 개보다 소, 돼지, 닭을 잡아서 고기로 더 많이 먹는다. 개가 식용으로 쓰이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면, 소, 돼지, 닭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동

물 중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개라곤 하지만 분명 공평하지 못한 문제다. 취재 때 나 역시 궁금했다. 그래서 HSI의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관계자분은 취재 사전조사 때 “언젠가 개뿐만 아니라 소, 돼지, 닭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세월에 따라 더욱 커지면 우리 동물을 이용한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로 식습관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기를 통한 단백질 섭취는 다른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고도 짚었다. 영양제도 충분히 발달했다. 그 말을 들은 장소는 다른 아닌, ‘비건(채식주의자) 식당이었다. 난 비건 식단에 맞춰 만들어진 햄버거와 감자 튀김을 먹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정곡을 찌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사회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 육식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이 갖춰지고 대중화된다면 사람이 고기를 먹는 횟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동물들 또한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그 시기가 되면 동물들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 믿는다. 언젠가 가족들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다시 돌아가서 세상을 떠난 동순이를 추억해 본다. 절의 스님, 보살님께서 동순이와 가족이 됐던 순간, 나 역시 그 경험해보고 싶어졌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